

# 1단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 <신약1\_1과 유아, 유치부 설교>

제목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배울 말씀	누가복음 1:26-35, 마태복음 1:1-2:6, 미가 5:2, 이사야 7:14, 9:6
읽을 말씀	마태복음 1:21-23 상
외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 13:23).
메인 아이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
포인트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음을 알라!

▶ 표시에서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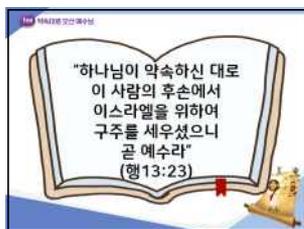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사진일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엄마 배 속에 있는 아기예요. 이 아기는 다음 달에 태어날 거래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가르쳐주셨지요.



지금 아기 엄마가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바로 귀여운 아기예요. 배 속의 아기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와 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엄마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는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었지요. 어떤 약속이기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준 후)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들어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을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 13:23). (함께 읽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가 맞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1단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 **죄지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만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하나님도 정말 속상하고 슬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는 누구실까요? (▶ **예수님**)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준 후)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 **마리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분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거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 **말씀**)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 **베들레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실 거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구원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야 해요. 이 약속대로 태어나는 아기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 약속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자에 대해 약속하신 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 당신은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곧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신 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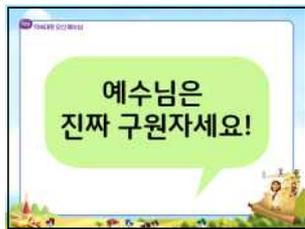


## 1단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약속대로라면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나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구원자가 아닌 걸까요? (대답을 들은 후) 또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마리아는 곧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모든 백성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고 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마리아가 아기 낳을 때가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방을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 요셉과 마리아)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 아기 예수님)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약속대로 태어난 구원자일까요? (대답을 들은 후) 왜 그런가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진짜 구원자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대답을 들은 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성경의 약속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구원자는 누구신가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나요? (대답을 들은 후) 그렇다면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보아요.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세요!”**

오직 예수님만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진짜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기로 해요!

